

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단청·조각·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영식

T. 931-2287(화선), 936-0069(전사관)

#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평생  
**빅맨평생통장**

- 40년 이상 실적의 최고 불교 1백만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 30년 이상 실적이면 거래가 30% 까지 상승기간이 최고 30년까지 늘어납니다.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태환/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논설위원: 고은/편집국장: 최정희/인쇄인: 김규석/등록번호: 다-3379/☎110-170 서울시 중로구 건지동 110-33/대표전화: 737-8881/편집국: 722-4162 FAX: 737-0698/광고국: 737-0692/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 이렇게 들었다

요즘과 같은 연말이면 더욱 불우한 이웃을 위해 마음을 쓰게 된다. 직계는 따뜻한 집안 한켠에서부터 '배움'이 행해지고 있다. 추운 겨울이 그래서 더욱 훈훈하게 느껴진다. 이같은 보시 실천은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발심해 이뤄진다. 보시는 불자가 실천해야 할 여섯 가지 덕목(육바라밀) 가운데 가장 수승한 바라밀이다. 몸과 마음을 갖추고 있는 현대인들이지만 작은 보시행이 사회의 밝은 빛이 된다. 아직 우리사회는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더 많다. (편집자 주)

한 장자는 지난 재산을 냈을 때, 그 한 부분의 재산으로는 항상 이자를 벌여 기업을 유족하게 했고, 한 부분의 재산으로는 일용(日用)에 필요한 물건을 공급했고, 한 부분의 재산으로는 고아와 의지할 데 없는 노인에게 주어 내세의 복을 닦았고, 한 부분의 재산으로는 친척과 오가는 나그네를 구제하였다. 이같이 냈으니 나 누어 밭이 없는 일이 끊어짐이 없었으니, 부자가 이어가면서 대대로 그 것이 기업이 되었다. (심지관경)

온갖 줄 수 있는 물건은 다 주는 것은, 부처님의 무상의 큰 묘자를 구하는 까닭이다. (십지론)

공주님 자에게 밥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면 무슨 잘못이 있으며, 열 벗은 자를 옷주어 감싸고 재앙에 빠진 자를 구해주면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매굴마경)

지혜로운 사람의 보시는 연민 때문이며, 남을 안락하게 해 주고자 하기 때문이며, 남으로 하여금 보시하는

- 사이비종교 척결대책 절실 15면
  - 겨울방학 필독불서 24권 12면
  - 불교극 '노미오와 주리에' 공연 13면
- 구독료납부 은행지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 “동포에 나누는 불자 됩시다”

## 우리민족돕기 불교운동본부 12일 출범

### 3월말까지 1차 모금활동 전개

### 조계종 범불교 운동 차원 추진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공동대표 지하스님 외 4인)가 지난 12일 조계종 불교회관1층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와함께 조계종총무원도 이 운동에 적극 동참기로 하는 등 범불교적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과보고와 조계종총무원장 월주스님의 법어 선언문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된 이날 법회



○32만원이면 북한주민 한 사람의 1년치 식량을 제공할 수 있다.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 창립을 계기로 동포돕기운동이 확산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12일 봉행된 불교운동본부 창립법회. <사진=고영배 기자>

잇단 정치성 법회 '수근수근' 중단연합회·종정협등... '정법 흐린다' 성명서 나와

불교계의 움직임이 군소종단들을 중심으로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승가대학학인연합회와 대한불교청년회는 지난 1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들어 정부의 불교갈등이기와 불교계분열장악에 편승하여 정치성행사를 잇달아 벌이는 것은 정법을 흐리게하는 온당치 못한 행위"라고 지적하고 자체를 촉구했다. 한편 대한불교종단연합회는 서경보스님 생전에 결성돼 이미 93년 1월 해체된 단체로 이를 최근 다시 부활하여 법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한 저의가 무엇인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대한불교종정협의회도 지난해 6월 20여개 여타종단 종정스님들로 친목과 유대를 목적으로 모임을 결성했다고 협의회측은 발표하고 있다.

## 젊은 인재를 찾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는 21세기 한국불교계를 이끌어갈 젊은 인재를 찾습니다. 불교의 생활화 대중화 세계화의 견인차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현대불교신문은 한국불교의 새장을 함께 열 새 인재를 모집합니다.

직종	인원	응시 자격
경력기자	0명	· 불교신자
수습기자	0명	· 4년제 대학졸업·예정자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면접 단, 경력기자는 1차와 면접에 한함
- ▲제출서류: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통, 이력서(명함판 사진 2매), 자기 소개서(원고지 5매 분량)
- ▲접수 및 문의: 1996년 12월 24일(화)까지 서울시 중로구 건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총무국 전화(02)737-8881
-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1996년 12월 28일(토) 오후2시 본사 사옥
- 인터넷 부다피아 검색 가능 (<http://www.buddhapia.co.kr>)
- 우편접수는 마감당일 도착 유요

**대승종 미륵반가상종·고교에 보냅니다**



◇ 박동호님



◇ 김명호회장

**동참해주신 분** △해월 한마음선원 관주지원 지원장: (11구좌) △법등 도리사 주지: 구미 금오공고 도계종교해령중고(6구좌) △창수사 운오스님: 경주 양남초고(1구좌) △김명연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회장: (3구좌) △조경옥: 선화여고(2구좌) △조영미: (1구좌) (12월 12일 현재 총 567구좌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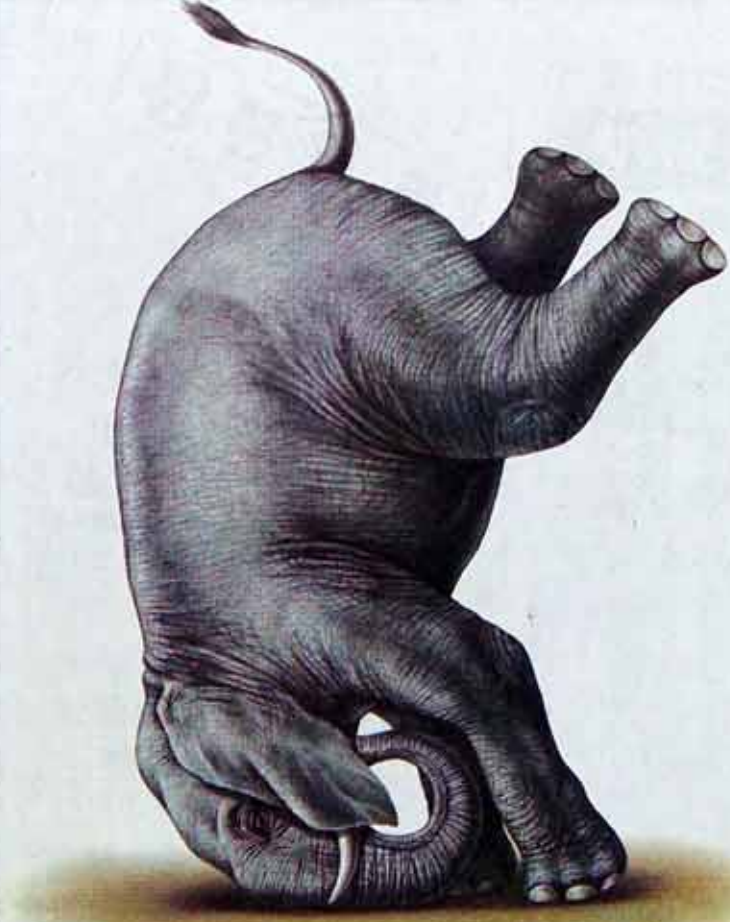
◇구좌단위로 참여합니다(1구좌 10만원)

**국민은행 계좌번호 023-25-0007-617**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중앙승가대 정규대 인가

태고학원 법인허가

중앙승가대학(학장 지하)이 지난11일 정규대학으로 승격, 공식 인가받았고 이에앞서 지난 6일 동방불교대학이 학교법인 태고학원의 설립허가를 받았다. 지난 79년 학원설립을 인가 받은 이래 17년 만에 정규대로 승격한 중앙승가대학은 현재의 중앙동 캠퍼스에서 불교학과 사회복지학과에 각 60명씩 120명의 신입생을 모집한다. 또 중앙승가대는 김포학사로 이전후 중과, 대학원 설립, 사회교육원 등을 설립할 계획이다. 96년 3월 개교예정인 동방불교대학은 입학정원 40명의 불교학과 단과대학으로 출발할 예정이며 경기도 용인시에 2만여평부지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충북 음성에 30만평부지를 물색중이며 10년계획으로 불교음악과 불교미술과 유아교육과 한의예과 등을 점차 개설할 계획이다.



지난 34년간 국가 기간산업을 선도해 온 효성중공업 - 끊임없는 기술창조로 21세기 초일류 중공업회사로 도약하겠습니다.

근본이 강해야 무엇이든지 제대로 서는 법 - 중공업은 모든 산업발전의 근본입니다. 지난 34년간 국내 중공업계를 선도해 온 효성중공업 - 첨단기술로 실현하는 풍요로운 21세기를 위해 효성의 도전과 창조는 멈추지 않습니다.

## 근본이 강해야 도전할 수 있습니다!

**전력사업부문**

산업에너지의 핵을 이루는 각종 중장기기 및 송변전설비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광범위 고효율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발전기, 차단기, 전압조, 계전동, 용접기, 절단설비

**기전사업부문**

산업의 원동력이 되는 전동기를 비롯하여 각종 플랜트는 물론 발전소용에 이르는 다양한 산업기계 및 설비개발로 산업 전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동기, 발전기, 압축기, 주철설비, 환강보철설비, 회차장치, 석도설비

**자동차사업부문**

최첨단 Mechatronics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고기능 단위 요소기에서 분산, 집중 제어 System까지 완벽한 자동화를 실현한 Total FA Solution을 자선있게 제안합니다.

제강설비, UPS, PLC 등 전선과, 용접 SYSTEM, SERVO SYSTEM, FA SYSTEM, 인조지마 SYSTEM

**건설사업부문**

한치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세심한 설계와 시공으로 안락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오피스빌딩, 각종 건축공사, 도로, 항만건설 등 토목공사, 포장공사, 운송공사